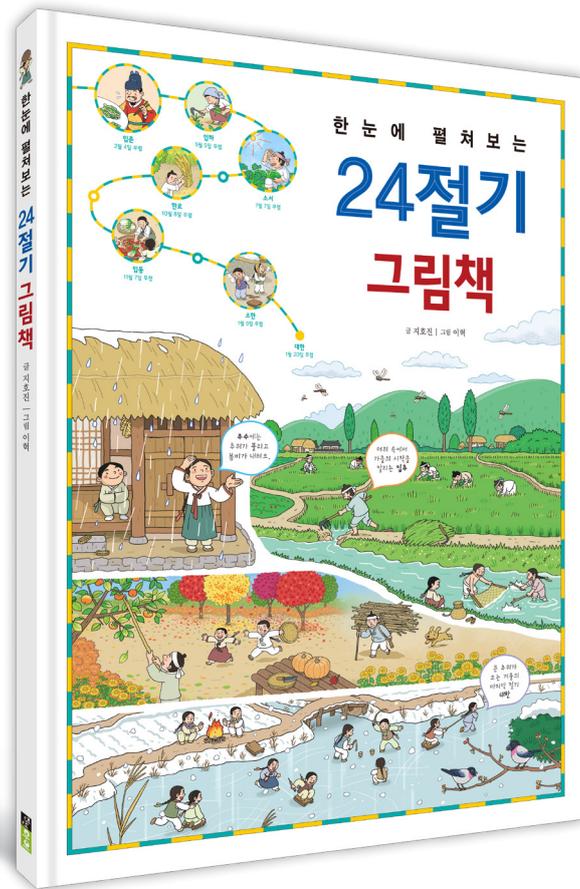


한눈에 펼쳐보는 24절기 그림책

• 일 년 열두 달 24절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지식 그림책 •



대상 학년 초등 전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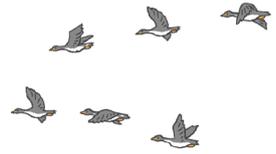
교과 연계

- 1학년, 2학년 통합 (봄, 여름, 가을, 겨울)
- 3학년 2학기 사회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 3학년 2학기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 6학년 2학기 과학 2. 계절의 변화
- 창의적 체험활동

※ 이 독서 활동지는 진선출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 포스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선생님의 추천 이야기



입춘, 하지, 동지 ...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명절인 듯 명절과 다른 24절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이와 어른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24절기를 왜 알아야 하고, 왜 계속 24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24절기는 1년 동안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그림처럼 쉽게 보여주기에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까 합니다.



1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짓는 조상들이었기에 끊임없이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쌓인 오랜 시간의 관찰의 결과물이 24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아직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1년 동안 사계절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알 수 있었고 사계절을 더 세분화하여 농사에 알맞게 24절기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추위 아직은 겨울 같은 때임에도 입춘이라 하여 농사의 시작을 준비했고, 비가 오는 때, 해가 가장 긴 때, 큰 눈이 내리는 때 등 기후를 예측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며 1년을 살아왔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24절기는 과학이자 사회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니 과학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사회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책 《한 눈에 펼쳐보는 24절기 그림책》은 1년의 변화를 예측하며 읽어 보고, 실제로 그때 24절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날씨인지, 왜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며 1년 내내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단지, 어려운 한자로 된 옛날 말이라 생각하며 넘기지 말고 때론 과학의 눈으로 또 때론 사회의 눈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조상님들의 슬기로운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최유라(청주 청원초등학교 교사)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하며
아이들의 교실이 더욱 행복한 곳이 되길 꿈꿉니다.

-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쌤스쿨>
- 그림책 연구회 <다독다독>
-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연수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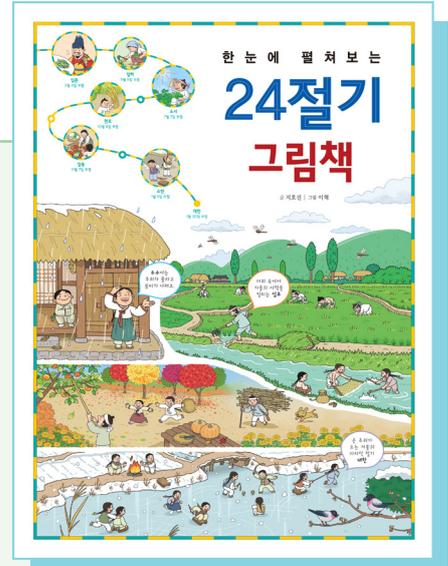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살펴보고 읽을 준비를 해 봐요



책의 표지를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책 표지에 등장하는 그림과 글자를 살펴봅시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정리해 봅시다.



표지에서 찾은 단어나 24절기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 봅시다.



주변의 어른들에게 24절기에 관해 무엇인지 물어본 후 정리해 봅시다.



뒷표지를 살펴보면 24절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24절기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읽을 준비가 되었어요. 읽고 싶은 부분부터 책을 읽어 볼까요?"





책을 읽으며 낱말 퀴즈를 풀어봅시다.



1	2					5	6	
	3						7	
					8	9		
	4							

- 5쪽** 입춘에는 OO으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콩이나 수수, 팥 등과 같은 다섯 가지 곡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OO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농사가 제일 잘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 13쪽** 곡우에는 조기가 많이 잡히는데, 이 무렵에 잡히는 조기를 OOOO이라고 불렀어요. 살이 연하고 맛있다고 알려지면서 곡우 때 조기를 먹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 6쪽** 24절기 중 두 번째는 OO예요. 입춘과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때지요.
- 15쪽** 입하 때에 꽃이 피는 나무여서 '입하목'이라고 불렀다가 OOOO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나무입니다.
- 31쪽** 입동 무렵인 음력 10월이면 집안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며 집안을 지켜 준다고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를 OO라고 하는데 시루떡과 술을 준비하여 간단하게 치렀어요.
- 11쪽** 춘분에 추위를 담당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해요. 냉장고가 없던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얼음 창고인 빙고를 만들어 얼음을 보관해 두었는데 빙고의 문인 빙실을 열 때 OOO를 지냈다고 해요.
- 12쪽** 설날, 추석,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4대 명절에 속해요. 한자어로 찬 음식이라는 뜻으로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묘를 돌보는 풍습이 있어요.
- 23쪽**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입추 뒤에도 장마가 계속되어 비가 내리면 OOO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농사에 피해를 줄까 날이 맑기를 빌던 제사였지요.
- 12쪽**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입니다. 날이 맑고 밝다는 뜻으로 공기가 맑고 밝은 것을 말해요.

정답은 맨 뒤 페이지에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옛날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24절기를 살펴보면 농사를 지으며 살던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 나의 생활과는 다른 모습을 찾아 글 또는 그림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24절기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나요? 해보고 싶은 풍습이나 먹고 싶은 먹거리는요? 꼭 경험하고 싶은 것을 이유와 함께 써 봅시다.

어떤 절기가 마음에 들었나요?

풍습이나 먹거리 등 그 절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 절기가 마음에 든 이유를 써 봅시다.



마음에 들었던 절기의 풍습을 실제로 해당하는 날짜에 해본 후 느낀 점을 정리해 봅시다. 단, 가족과 함께 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절기를 계절의 기준으로 삼고 농사와 생활에 이용해 왔어요. 예시를 보고 해당하는 절기에 농부는 어떤 일기를 썼을지 상상하여 일기를 써 봅시다.

예시

15**년 2월 4일 (입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춘이 되었다.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더니 여전히 너무 춥지만 이제 입춘이니 봄을 준비해야 할 때다. 먼저 ‘입춘대길’을 정성스럽게 써서 기둥에 붙이고 보리뿌리 점을 쳤다. 캐보니 세 가닥이다. 올해는 풍년이려나. 기대가 된다. 저녁 때는 오곡으로 점을 쳐 봐야겠다. 아무쪼록 올해도 풍년이기를 기원해 본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절기: _____)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multipl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4페이지 정답 : 1. 오곡 2. 곡우살이 3. 우수 4. 이팝나무 5. 고사 6. 사한제 7. 한식 8. 기청제 9. 청명